



## 핵 폐수 방류 시작

# 기시다와 윤석열,

# 환경과 안전에 완전 무신경한 자들

기시다 정부가 끝내 핵 폐수 방류를 시작했다.

'최소 30년'이 걸릴 것이라는 이 계획은 실제로는 훨씬 길어질 것이다. 핵 폐수 발생의 원인인 연료봉 잔해 제거 작업이 한없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핵 폐수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될지도 알기 어렵다. 사고 현장은 출입이 통제되고, 지하 터널을 거쳐 수십 10미터 아래로 방류되는 폐수는 외부에서 관찰할 수가 없다.

IAEA는 안전성 감시 카메라 일찌감치 2013년부터 일본 정부에 해양투기를 권유한 당사자다. 알프스의 성능은 검증하지도 않았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투기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지도 않겠다고 했다.

뻔히 예상되는 결과 한 가지는, 실수 혹은 고의로 방사성 물질이 대량 포함된 오염수가 방류 터널을 통해 바다로 흘러 나가는 것이다.

도쿄전력은 2014년에 핵 폐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을 숨기다가 들쭉날쭉하다.

최악의 경우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물이나 핵폐기물 자체가 대량으로 배출되더라도 알 길이 없다. 이를 감시하는 것도 사실상 도쿄전력 자신이기 때문이다. IAEA가 이를 제대로 감시하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과정이 "과학·기술적으로 문제 없다"며 방류를 사실상 지지했다.

일본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이 긍정적으로 말해 준 것이 컸다" 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JTBC 8월 24일 자)

2주마다 하기로 했다는 정기적 방문은 "제대로 검증하도록 허락해 줄 리도 없어 보이고 의지도 없으리라 우려됩니다. 지난번 파견한 '검증단'의 행적을 보며 짐작이 갑니다." 최무영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의 지적이다.



### 갈수록 핵발전, 핵무기에 기대는 세계 지배자들

최소 30년 이상 계속될 방류는 온갖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그럼에도 핵 폐수를 방류하는 기시다와 이를 적극 지지한 바이든, 윤석열은 이 정신 나간 짓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긴급한 필요를 상호 지지함으로써 대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공조를 더 확고히 하는 것이다.

이들은 중국과의 경제적·지정학적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핵발전소 증설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여긴다. 중국은 55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있고 21기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다.

한미일 동맹 강화를 선포한 8월 18일 정상회의가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승인한 회의가 된 이유다.

한·미·일 세 국가가 다 핵발전소를 새로 짓고 있고 앞으로 더 늘리려 한다.

제국주의와 친제국주의 지배자들에게 핵발전소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원이자

핵무기의 원료 공장이자 핵무기 기술의 보고다.

이들에게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 현장은 핵발전 확대와 핵무기 기술 개발을 어렵게 하는 낙인과도 같은 것이다. 기시다·윤석열·바이든은 이를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어한다.

### 방류 시작됐지만 반대 정서와 운동은 여전하다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핵 폐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기시다는 최종 순간까지 일본 어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도 방류를 강행했다.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민주당과 환경단체들, 정의당, 진보당 등이 반대 행동을 이어가

고 있다. 24일에는 일본 대사관에 항의차 진입하려던 청년들을 경찰이 연행하기도 했다.

이 청년들의 항의 행동은 완전히 정당하다. 한일 양국의 평범한 사람들뿐 아니라 전 세계 인류와 생태계에 커다란 짐을 지울 핵 폐수 방류는 중단되어야 한다.

핵 폐수 방류에 분노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을 패퇴시키고 싶어 할 것이다. 당연히 총선에서 여당을 패퇴시켜야 한다.

그러나 총선에서 패배한다고 해서 윤석열이 일본에 방류 중단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핵 폐수 방류가 무모한 결정이었음을 보여 주는 사건들이 이후 일어날 가능성은 크다. 그러면 운동이 다시 성장해 방류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

### <노동자 연대> 정규호에는

중국 경제 위기와 한국 경제, 노동의 소외,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관동 대지진 100년, KAL기 격추 사건 40년 등 유익하고 따끈따끈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 정부의 교권 보호 종합 방안은 학생 통제, 학부모 민원으로 교사를 계속 고통스럽게 만들 것

##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행동은 정당하다

8월 23일 교육부가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터져나온 집회가 매주 계속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물론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시작될 때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교사들의 스트레스를 조금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 대책은 교육 환경 개선에 별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교사들을 계속해서 갈등과 분란에 빠트릴 공산이 큰 방안들이다.

예를 들어,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의 민원 대응팀을 구성해 민원을 처리한다는 방안은 교사 업무는 줄이지 못하면서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 공무직과의 갈등만 커질 수 있다. 이미 공무원과 공무직 노조들은 교사의 민원 업무까지 떠맡을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법으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을 규정하고, 악성 민원 학부모에게 특별교육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특별교육과 과태료 부과 위협으로 악성 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까?

그리고 법으로 '악성' 민원과 정당한 생활지도 등을 명시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안에서 그것이 정말 '악성' 민원인지, '정당한' 생활지도권인지를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는 학생인권조례 수정과 교권 침해 생활기록부 기재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많은 교



사들이 학내 갈등만 키운다며 반대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정부의 생활지도 고시안도 학내 갈등을 키울 문제투성이 방안이다.

예를 들어, 고시안은 긴급한 경우 교사가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물리적 제지가 체벌인지를 놓고 논란과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방안도 학생

을 낙인 찍는 효과만 내고 교육적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을 심화시킨다. 이런 식으로 상황이 악화되면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일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교사들이 학생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전제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인력 확충 등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매우 미흡한 대책만을 내놓고 제대로 시행도 하지 않자 많은 교사는 주말 집회 이상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래서 교사들은 지금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에 재량 휴업, 연가, 병가 등의 방식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9월 4일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교사가 8월 24일 기준으로 이미 7만 명을 넘었다.

교사들의 단체행동이 예고되자 교육부는 불법이라며 엄정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껏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겨 학교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교사의 고통을 가중시켜 온 정부와 교육 당국이 또다시 별 볼 일 없는 대책이나 내놓으며 교사들에게 참고 있으라고 하니 교사들은 울화가 치밀 수밖에 없다.

반면, 진보 교육감들은 9월 4일 재량 휴업 추진을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9월 4일에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진보 교육감들은 지금껏 학내의 다양한 갈등을 방임하고,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겨 온 책임이 있다. 이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은 8월 19일 집회 때 연단에 올랐다가 교사들의 거센 항의와 야유를 들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진보 교육감들의 이런 발표는 9월 4일 행동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많은 교사들에게 힘이 될 것이다.

9월 4일이 다가올수록 ‘공교육 멈춤의 날’을 비난하는 정부와 우파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정부의 징계 위협도 더욱 노골화될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이 단 하루뿐일지라도 단체행동으로 힘을 보여 주지 못한다면 정부와 교육 당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도록 만들기는 더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9월 4일 행동에 더 많은 교사가 참가해야 한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매주 온라인 토론회 방송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 옥스퍼드 대학교 존 패링턴 교수 초청 강연

**시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까?**

9월 4일(월) 오후 8시 **발제 존 패링턴**

유튜브 실시간 방송 **노동자연대TV** 검색

옥스퍼드 대학교 세포/분자역리학 부교수 인간의 뇌와 의식 연구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당원 ※ 전문 통역사의 순차 통역이 제공됩니다.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